

現代漢語 文法化 研究의 現況과 爭點

金善雅

(龍仁大學校 中國學科 專任講師)

031-8020-3123, sakim@yongin.ac.kr

차례

I. 序言

II. 文法化 研究의 發展現況

III. 文法化 理論研究의 爭點

IV. 個別研究現況 및 新動向

V. 結語

I. 序言

최근 들어 '문법화(grammaticalization)'는 국내외 어법학계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문법화연구 발전에 공헌을 했으며 많은 관련 논의들이 진행 중이다. 문법화란 “한 단어가

주로 어휘적 기능을 하는 것에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에서 '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킨다.¹⁾ 이러한 과정은 매우 유동적인데, 이를 연속변이(continuum)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서구 언어학계의 독창적인 산물은 아니다. 중국 전통 언어학에서는 이를 '實詞虛化'로 불렀으며 이미 13세기에 제기된 개념이다. 元代의 周伯琦는 저서 《六書正偽》를 통해 '大抵古人製字, 皆從事物上起。今之虛字, 皆古之實字(무릇 先人들이 글자를 만들 때는 사물을 따랐으며 지금의 허사는 모두 예전의 실사에서 유래했다)'라고 주장했다. 서구 언어학에서는 프랑스의 Meillet(1912)는 문법화라는 술어를 최초로 사용하면서 "언어에서 실질적인 단어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어법적 기능만을 하는 성분으로 변화하는 하나의 과정 혹은 현상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문법화 연구의 목적은 '독립적인 단어의 어법 성분으로 변화에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문법화 연구에 대한 회고와 문법화 연구 특징에 대한 관찰을 통해 중국 언어학계의 문법화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의 논의범주를 문법화의 개념 및 문법화 과정의 원리와 관련된 학자들의 논의와 쟁점, 문법화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 및 새로운 동향 등을 위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Ⅱ. 文法化 研究의 發展現況

1. 1994년 이전의 연구

어휘 의미의 허화 연구는 《馬氏文通》 이래 100여 년의 역사를

1) Hopper & Traugot, 1993[1999:2] 참조.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1994년 경계로 중국 내 문법화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1994년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어어법역사발전 이론과 관련한 체계적인 저작은 太田辰夫의 《中國語歷史文法》으로 그는 1958년 현대 중국어를 기초로 唐代에서 明清代까지 중국어 어법의 역사적 발전을 조망했다. 당시는 문법화 이론이 확립되지도 않았었지만 저서에서는 문법화이론을 운용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들어와 黎運漢(1981)이 허화과정, 解慧全(1987)이 허화기제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나 당시 큰 주목은 받지 못했다.

문법화 연구는 미시적 연구에서 거시적 연구로 이행되어왔는데 초기에는 周慶之(1991)의 어기사 ‘那’, 劉勛寧(1985)의 문말의 ‘了’의 연원의 분석과 같이 미시적인 연구 즉, 개별 虛詞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많았다. 또 呂叔湘(1985)의 지칭표기 허화연구는 당시 문법화 연구에 있어 중요한 대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당시의 연구는 문법화 과정을 관찰하면서 개별 단어의 변화에 대해 심도 있고 세밀한 묘사를 한 데 반해 분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梅祚麟(2000)은 ‘묘사는 분석이 아니다 분석이란 첫째 분석을 요하는 현상을 다른 비슷한 현상과 연관시키는 것이며 둘째, 이전에 없었던 구조가 어떻게 그 시기에 생겨난 지를 설명해야한다’라고 했다. 또한 분석 결과는 귀납하고 추상화해야 이론으로 격상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결여되어있었기 때문에 중국 국내 문법화 연구들은 현대의 문법화 이론과 일치된 학술적 경향을 보였지만 보편적 이론으로는 격상되지 못하고 이론의 발명은 모두 서구 학자들의 몫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일부 학자들의 당시 연구는 현대적인 문법화 이론과 일치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편적 이론의 층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론화는 서구 학자들의 몫이었다. 예를 들어 蔡慶浩(1990)와 같은 학자는 南北朝 시기의 ‘看’은 시도(測試)의 동사에

서 어조사로 허화되고 있었으며 시도를 나타내는 다른 동사 뒤에서 連動式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다음 단계로 동사성을 점차 상실하고 어조사로 변화하는 과도기의 ‘看’을 동사로 볼지 아니면 어조사로 볼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두 단계는 허화의 의미 연쇄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것이지만 허화의미연쇄 이론은 1994년에 중국에 소개되었다.

2. 1994년 이후의 연구

1994년에 들어와 沈家煊과 孫朝奮이 해외의 문법화 이론과 관련 성과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1995년 劉陞 등이 해외의 기존 연구 성과와 국내의 중국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중국어 문법화의 기제(機制)에 대해 추상적인 귀납을 시도했다. 1998년 다시 沈家煊은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테마로서 각광을 받게 된 문법화 연구에 촉진제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네 편의 논문은 그 후 중국의 문법화 연구에 기초적이며 지침적(指導性)인 이론적 배경이 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현대적인 의미에서 문법화 연구는 1994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孫朝奮은 1996년 《漢語史上的語序變化和語法化》에서 문법화 이론을 적용하여 중국어 완성태 표지 ‘了’, 處置式 표지 ‘把’, 정태 표지 ‘得’어법표지들의 발전을 분석했다. 또한 문법화를 일으키는 동기, 도상성(iconicity:臨摹性)²⁾ 등에 대해 논의했다.

2) 일반적으로 언어의 자의성(arbitrary)에 반대되는 개념이 圖像性(iconicity)이다. 도상성이란 언어에 실제 세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언어의 도상성은 동기화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戴浩一(1985)에서는 두 개의 통사적 단위들의 배열 순서는 언어사용자의 인식세계 속에서 그 두 단위들이 나타내는 상황의 상대적인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시간 순서의 원칙(temporal sequence principle)’이라고 하였다. 도상성의 경향은 다음과 같은 다중 수식구조에서 잘 드러난다.

문법화 연구의 초기에는 미시적인 개별 연구에 치중했지만 점차 연구 범위가 전체 통사, 의미범주 혹은 전체 품사 분류 연구까지 확대되었다. 石毓之, 李訥(2001)는 시대표지 ‘了’, ‘着’, ‘過’의 발생 메카니즘을, 張誼生(2000)은 실사 단어의 부사화를 일으키는 세 가지 통사 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연구의 시야를 넓혀 ‘문법화’ 연구를 전체 단어의 발생과 교체라는 큰 환경 속에 편입시켜 연구하였다. 이러한 학자로 劉丹青(2001), 李宗江(1999)이 대표적이다. 劉丹青(2001)은 ‘문법화는 불충분 문법화, 충분 문법화, 과문법화의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으며 과문법화의 결과로 어법 범주의 약화, 소실 및 재문법화 과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새로운 재문법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불충분 문법화를 기점으로 어법화의 순환을 형성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독립적이고 단발적인 문법화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약간의 혹은 이론상 무한대의 문법화 연쇄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쇄적인 문법화 과정을 단어의 발생과 교체의 환경을 대전제로 삼아 문법화 연구를 역사적 층위로 심화시켰다.³⁾

- a. 구두 → 값이 비싸다, 아버지가 사주셨다, 질이 좋다.
- b. 아버지가 사 준 값이 비싼 질 좋은 구두
- c. ?질이 좋은 아버지가 사 주신 값이 비싼 구두
- d. ?값이 비싼 질이 좋은 아버지가 사 주신 구두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위의 (a)와 같이 구두에 대한 세 개의 수식어구들을 제시하고 하나의 선상으로 배열하도록 하면 거의 모두 (b)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 낸다. c, d 그 외의 다른 가능한 구조들은 모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통사적인 배열 원리는 수식어구의 의미가 얼마나 피수식어의 자질에 필수적인가 하는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즉 구두의 자질은 [구매가 < 가격 > 품질]의 순서로 밀접한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언어사용자들의 인식이며 이것이 곧 통사적인 배열원리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성하(1998) 참조.

- 3) 그는 더 나아가 ‘更新’, ‘強化’ 등의 어휘 수단과 문법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어휘 요인의 부가는 문법화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한 1994년 이후 문법화 연구가 진행되어 2001년 가을, 天津에서 제1회 漢語語法化問題國際學術討論會가 개최되어 20여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격년으

Ⅲ. 文法化 理論研究의 爭點

1. 文법화와 虛化

중국 언어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문법화’를 허화로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孫朝奮(1994)이 Bernd Heine, Ulrik Claudi & Hvnneyet의 《grammaticalization-A Conceptual Framework》을 소개할 당시 이를 《虛化論》으로 번역했던 영향이 크다. ‘虛化’는 문법화의 중요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문법화의 전반적인 과정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문법화는 의미상의 허화뿐 아니라 語音의 약화, 특히 어법적 공기(搭配)의 일반화(泛化), 화용상의 탈색(淡化)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허화는 단어 의미의 ‘實’에서 ‘虛’로의 변화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문법화의 범위는 허화보다 넓으며 ‘문법화=허화’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 언어학계에서의 ‘실사의 허화’를 문법화라고 여겼다. 동사가 개사로, 형용사가 부사로의 예와 같이 실사의 의미가 허화를 거쳐 어법 의미로 파생되는 것은 어휘에서 통사 영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형적인 문법화 현상이기는 하지만 문법화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馬清華(2003)는 문법화는 어법 의미의 재생 현상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단어가 허화 된 상태에서 다시 변화하는 것, 즉 부사가 접속사가 되는 약간 허화에서 더 허화 되는 것(허화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 또 접속사나 어기조사와 같이 변화 전후의 의미가 거의 같은(同等 虛靈) 수준에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중국 언어학계에서의 문법화는 어휘의 문법화에 대한 술어로 실사와 허사의 문법화도

로 학회를 개최하고 있다.

포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사의 허화는 어휘의 문법화 중 하나의 형태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吳福祥(2002) 역시 문법화와 허화(bleaching)⁴⁾를 구분하였다. 문법화의 관심은 의미단위 혹은 화용단위가 어떻게 특징한 어법형식을 구현하는가에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화용, 텍스트 범주의 主題가 어떻게 통사 층위의 주어가 되며 하나의 의미 개념 혹은 명제와 유사한 의미 표현이 어떻게 특징한 형태적 성분 혹은 통사형식으로 실현 혹은 고정되는가에 있다고 했다. 즉 문법화의 결과는 늘 일종의 어법형식의 탄생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허화(實詞虛化)는 단어의 의미가 '實'에서 '虛'로 이행하는 변화과정에 천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어 의미의 추상화, 일반화, 약화에서 완전히 소실되어 어법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로의 과정은 자연히 허화의 중요한 형태이다.⁵⁾

2. 문법화의 機制

문법화의 기제⁶⁾는 문법화 연구가 개척한 새로운 영역이며 현대적 의미의 문법화 연구는 문법화 기제에 대한 관심을 필두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문법화 기제는 현재 문법화 연구에서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사용에 있어 많은 혼란이 있으며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沈家煊(1998)은 좁은 의미에서 문법화의 기제는 문법화의 방식이라고 보았다. 洪波(1998)는 문법화의 기제가 문법화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하면서 명백히 문법화의 동기(誘因)와 동일시했다. 그는 문법화의 동기 분석을 하는 까닭은 왜(why)를 설명하며 또 그 성과를 다음 단계의 문법화 방향을 예측

4) 일반 언어학에서는 이를 의미의 탈색이라고 한다. 김은일 등(1999) 참조.

5) 이러한 상황에서만 허화의 함의가 문법화와 동등해진다. 王鳳敏(2005) 참조.

6) 機制를 '動因', '誘因'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문법화의 방식과 기제를 모두 문법화의 기제로 보았다.

한편 馬清華(2003)는 이에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고 하고 협의의 기제는 문법화의 방식, 광의의 기제는 문법화의 동인으로 나누고 이들 양자는 대체적인 대응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 石毓志·李訥(2001)은 중국어 시대표지의 탄생 기제를 분석하면서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법화 기제를 보았는데 문법화 실현의 조건, 문법화 과정과 단계 및 상응하는 표현형식까지 다루었다.

이를 통해 문법화 기제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으며 여러 학자들의 문법화의 기제 혹은 동인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본다면 단어의 의미 특징, 통사적 위치, 언어 환경, 인지심리 등의 다음 몇 개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 의미 특징

독일의 BemdHeine는 허화의 전제조건은 實詞의 의미 자체라고 하였다. 解惠奎(1987)은 실사의 허화는 의미를 기반으로 하고 통사적 지위를 경로로 삼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却’는 동사 ‘返回’의 의미가 전환 부사 ‘反而’의 의미로 허화되었다. 의미상 ‘返回’는 [+이동방향과 상반]이라는 비초점 의미를 가지면서 ‘却’가 전환 부사로 허화될 수 있는 의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동방향과 상반(位移方向相反)된 의미는 더욱 추상화 되어서 추상적 사물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앞에서 말한 내용과 상반되거나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反而’, ‘倒’의 의미가 된다. 통사구조에서도 연동식 ‘却+V2(+O)’에서 문장의 의미 중심은 V2에 있으며 ‘却’은 부수적인 동사이다. 또한 V2 앞의 부사어의 위치는 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위치중의 하나이다. ‘却’과 ‘V2’는 항상 함께 쓰이기 때문에 ‘却’의 통사적 위치는 점점 고정되었고 동사의 의미도 점차 약화되어 전환 부사로 허화되었다.⁷⁾

2) 통사 위치의 변화

대다수의 상황에서는 어휘의 문법화는 먼저 실사의 통사적 위치의 변화로 일어나게 된다. 대다수의 중국어 허사는 동사와 형용사에서 허화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主-述-賓’의 형식에서 동사의 통사적 위치는 술어이다. 술어가 되는 동사는 하나이며 문장의 핵심 성분이 된다.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혹은 상태는 실체적인 것이다. 그러나 동사가 ‘주-술-賓’의 형식이 아니고 문장의 유일한 성분도 문장의 중심동사(주요동사)도 아니면 그 동사성은 약화된다. 다시 말해 동사가 문장에서 부수적이며 통사적 위치가 고정되면 그 의미는 점차 추상화되며 허화된다. 더 나아가 어법 기능에도 역시 변화가 생긴다. 즉 문장의 술어나 구성성분이 아니라 술어동사의 수식 성분 혹은 보충성분이 된다. 이러한 의미상 허화는 더 나아가 문법화라는 결과를 만드는데 바로 어휘 성분이 어법 성분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근대 중국어 동태조사 ‘將’, ‘着’, ‘取’, ‘得’ 등은 모두 동사에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동사에서 조사로의 변화는 連動구조를 형성한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부차적인 위치에 고정화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초래했다.

3) 언어 환경(語境)의 영향

단어의 의미와 기능은 늘 일정한 언어 환경에서 구현되는 것이므로 어휘의 문법화 과정에서 언어 환경(語境)은 고려 대상이 된다. ‘敢’의 조동사에서 반문 부사로의 문법화는 반어문(反語文)이라는 언어 환경에서 실현된 것으로 협의의 통사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언어 사용자가 처한 환경은 문법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沈家煊(1998)은 실사 허화의 기제를 분석하면서 흡수

7) 董淑慧(1996) 참조.

(absortion) 단계에서는 허사가 있는 上下文의 언어 환경의 의미의 영향을 받으며 유추(推理) 단계에서는 광의의 언어 환경의 의미 즉 언어 사용자가 처한 환경이라고 하였다.⁸⁾

4) 인지 심리적 요인

《虛化論》에서 허화의 연구는 인간 대뇌의 인지적인 적응성 변화와 분리될 수 없으며 단순히 언어구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인간은 具體에서 抽象으로의 규율을 따르게 마련이고 인류의 인지능력의 한계와 인지적 필요에 의해 인류는 추상 개념을 표현할 경우 암시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은유(metaphor)로 표현하게 된다. Heine는 광의의 은유는 허화의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라고 보았다. 은유는 구체적 개념으로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문법화의 구체에서 추상 혹은 덜 추상적인에서 매우 추상적인 경로와 일치한다. 사람들은 비교적 구체적인 공간을 빌어 더욱 추상적인 시간을 이해하게 되는데 ‘她在廚房’, ‘她在做飯’에서 ‘在’는 장소를 나타내는 동사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변화하는 것과 같다.

사실 어법학계에서 논쟁이 되는 재분석(reanalysis) 역시 인지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 재분석은 표층구조의 형태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A, B), C로 분석되던 구조가 인지적 각도의 변화로 인해 재분석을 거쳐 A, (B, C)로 변화한다. 다시 말해 문장의 표층 구조가 불변하는 상황에서 인지적 변화로 인해 동일한 언어형식에 새로운 다른 해석이 부여된다. 馬清華(2003)는 이를 ‘附會’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善於X, 敢於X, 勇於X’는 음절적 요인으로

8) 문법화의 기제는 단계별로 각각 다른데, Bybee *et al.*에서는 유추(analogy)란 언어 형태를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작용하는 압력이라고 하였고 흡수(absortion)는 한 문법소가 원래 담당하고 있던 기능을 잃어 버리면서 그것이 쓰이는 문맥에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성하(1994) 참조.

다음절 서술어 'A/於X'가 'A於/X'로 재분석되어 이음절 'A於' 단어가 나타나게 했다. 이와 동시에 '於'의 문법화 즉 후치사화를 나타나게 했다. 이를 통해 문법화의 동인은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몇 가지 요인은 서로 다른 측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문법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동시에 상호 교차되어 서로의 전체 조건이 되었다. 또한 몇 개의 요인이 함께 문법화의 과정과 발생 및 발전을 추진시켰다. 이외에도 언어사이의 접촉, 서면어와 구어의 상호 영향 등도 문법화를 발생을 일으킨다.

3. 문법화의 原則

1) 점진성

문법화는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으로 점진적인 변화만 있을 뿐 돌발적인 변화는 없다. 다시 말해 문법화는 연속적 점진적 과정이다. 이 원칙은 한 단어가 A의미에서 B의미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A와 B의 의미를 모두 가지는 중간 단계를 찾을 수 있으며 전체 허화의 과정은 하나의 고리로 맞물려 서로 인접한 두 고리는 상호 교차되는 두 개의

집합이다. 또 그 교집합은 허화 과정중의 연속성을 보이며 '문법화 연쇄(grammaticalization chain)'를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却'의 둘째 의미 항목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⁹⁾

그림1 '却'의 두 의미항목의 변화

9) 문법화는 연속체의 구조에 더하여 또한 하나의 연쇄, 사슬(chain)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Heine(1992)에서는 '연쇄'라는 용어를 문법화 과정이 갖는 단계적 속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슬 고리의 결과는 또 다른 고리의 원천 구성소가 될 때 생기는 것이며 문법화의 사슬은 다른 언어 이론으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는 언어 범주의 유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러한 범주는 주로 문맥에서 추론된 재해석과 인지적 및 화용적 힘 사이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이정애(199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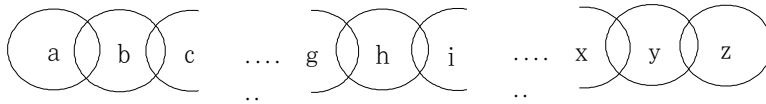
a는 동사 '返回', b는 허화가 시작된 것으로 h에서 전환 부사로 허화 된다. z에 이르러서는 정태부사로 허화된다. a에서 z의 허화 정도는 점차 높아지고 b에서 y까지 고리 사이의 구분은 이들의 양 끝에 있는 a와 z의 허화도와 다르다. 전체 허화의 과정은 양의 변화 과정이다. h와 z는 변화지점으로 양의 변화가 일정 정도에 이르면 필연적으로 생겨난 결과이다. 한편 a, b와 z는 서로 다른 개념범주에 속하는데 a는 동사, h는 전환부사, z는 정태부사이다.

2) 단일 방향성(unidirectionality)

단일방향성은 문법화의 필수적 개념으로 정의 자체에 이를 내포하고 있다. 실사가 어법 표지로 변화하는 과정-의미, 형태-통사와 어음-음계의 과정을 거치므로 단방향성은 일반적으로 위의 세 개 층위에서 상응하는 표현을 갖게 된다.

(1) 화용 - 의미

추상성 점진적 증가: 구체 의미 감소 > 추상 의미 > 더 추상 의미
주관성의 증가: 객관성 적음 > 주관적 > 더 주관적



(2) 형태 - 통사

부착성 점진적 증가: 자유 > 약한 부착성 > 강한 부착성
강제성 점진적 증가: 선택가능 > 약한 강제성 > 강한 강제성
범주적 특징 점진적 감소: 다범주 특징 > 약한 범주적 특징 > 범주적 특징 상실

(3) 어음 - 음계(음소)

음계형식 점진적 감소 혹 약화: 완전한 음계형식 > 약한 음계형식

이는 문법화 과정이 단일한 방향임을 나타낸다. 劉丹青(2001)

은 문법화는 단일한 길에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며 한 실사가 일단 문법화가 시작되면 의미상의 허화, 통사상의 일반화(泛化), 화용상의 탈색(淡化), 어음의 약화라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였다.

많은 문법화 실례들은 단방향성 원칙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고대 한어의 대명사 '是'의 반례를 들고 있지만 이들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소수의 개별적인 예를 가지고 문법화의 경향을 부정할 수는 없다.¹⁰⁾

문법화 과정은 점진성과 단방향성의 규칙 외에도 많은 다른 규칙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並存성의 원칙, 특정화 擇一(specialization)¹¹⁾, 품사 강등(降類)¹²⁾이 그것이다.¹²⁾ 그러나 이들

10) '역문법화(unidirectionality)' 즉, '去語法化'의 예도 제기도 되고 있으나 이것이 단일방향 원칙을 파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론화는 되지 못했다.

11) 貝羅貝 著, 孫梅清 譯, 漢語的語法發展-論語法化, 漢語語法化研究, 北京:商務印書館, 2005.

12) Hopper(1991)는 문법화의 초기 단계에 주목하고 문법적 형태가 출현하게 되는 5개의 원리를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적층화(Layering)의 원리로 새로운 층들이 하나의 기능적 영역 안에서 발생한다면, 오래된 층들은 반드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남아서 새로운 층들과 같이 공존하며 상호 교류할 수 있다. 둘째, 분화(Divergence)의 원리 : 어떤 실체가 문법화를 겪게 되면, 그 결과 이제는 공통의 어원을 가지지만 기능적으로는 분화가 되는 두개 또는 다수의 형태들이 있다. 셋째, 특정화(Specialization)의 원리 : 이는 발생적 문법의 구조를 특정 짓는 선택이 좁아지는 것을 말한다. 넷째, 의미보존성(Persistence)의 원리 : 하나의 문법화된 의미 B가 발달할 때, 이것은 반드시 선행 의미 A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B는 아직 '형태화'를 겪지 않는 한도 내에서 A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의 원리 : 문법화란 해당된 실체의 주요 범주성이 감소되어 가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수식어구와 같은 범주성의 선택적 표지의 상실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담화의 자율성이 상실됨을 의미한다. 또한 Bybee, Perkins, & Pagliuca(1994)의 문법화의 가설을 소개했는데, 근원결정성(source determination) 가설, 단일방향성(unidirectionality) 가설, 보편적 통로(universal paths) 가설, 이전 의미의 보유(retention of earlier meaning) 가설, 의미 보유의 결과(consequence of semantic retention) 가설,

은 앞의 두 원칙보다 뚜렷하지 않는데 '병존성 원칙'은 문법화 과정에서 특정 단계에서만 작용을 하기도 한다.

IV. 個別研究 및 新動向

1. 개별 문법화 현상 연구

1) 정태표지

정태성분은 표층구조에서 술어성 성분 및 전체 문장과 관련된 다. 그러나 심층 의미구조에서는 時態, 語氣, 긍정과 부정, 비유(比況) 등의 표기성분을 포함한다. 품사의 각도에서 보면 대부분 현대 중국어의 부사, 어기사와 구조조사를 제외한 다른 조사는 모두 情態詞이다.

時態범주에서 蔡慶浩(1990)는 中古 중국어 시도를 나타내는 조사 '看', 李崇興(1990)은 근대 중국어 의미지향 조사 '去'의 허화 분석을 하였다. 張伯江·方梅(1996)는 중국어 시도상 범주의 문법화를 분석했으며, 徐丹(1992), 孫朝奮(1997), 江藍生(2001)은 동태조사 '箝'에 대한 문법화 연구를 하였다. 石毓之, 李訥(2001)은 중국어 시상표지 '却, 去, 了, 着, 過' 등의 탄생 기제를, 劉勛宁(1985)은 현대 중국어 문말조사 '了'의 어원분석, 張國憲(1998)은 형용사 상의 형태와 과정에 대한 유추, 張誼生(2000)은 중국어 실사 부사화의 3가지 주요 통사구조관계 등을 연구하였다.

語氣방면에서 江藍生(2001) 의문 어기사 '呢'의 연원, 朱慶之(1991)는 의문조사 '那'의 연원, 羅驥(1994)는 北宋 문말 어기조

의미의 축소와 음운의 축소(semantic reduction and phonological reduction) 가설, 적층화(layering) 가설, 관여성(relevance) 가설이 그것이다. 이정애(1998), 최형용(1997) 참조.

사 '诘'에 대한 연구, 吳福祥(1998)은 어기사 '麼'의 연원, 鐘兆華(1997)는 '嗎', '呀'의 연원, 孫錫信(1999)은 근대 중국어 어기사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한편 비유(比況) 부문에서 江藍生(2001)은 조사 '似的'의 연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 지칭표지

지칭표지는 통사에서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를 포함하며 의미상 대부분 명사성 성분에 속한다. 지칭표지의 허화연구로 呂叔湘의 《近代漢語指代詞》는 초기의 중요한 대표 저작이다. 張伯江·方梅(1996)는 지시 대명사의 허화과정을 연구하였고 李宇明(1998)은 의문표지의 기능의 약화 기제를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칭범주의 문법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의문표지의 기능이 약화된 후 '任指, 虛指, 定指, 互指'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3) 구조표지

구조표지는 통사적으로 개사, 연결사 및 구조조사를 포함한다. 90년대 이후 개사부분에서는 郭錫良(1997), 趙大明(1998)은 개사 '于'의 발전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關聯詞 부분에서는 張煉強(1990)이 'x時'의 문법화 과정, 李泰洙(2000)는 《老乞大》의 4가지 판본의 실례를 근거로 假設의 어기조사 '時'의 문법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조조사 부문에서는 馮春田(1990), 江藍生(2001)이 구조조사 '底(的)'의 연원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中國社會科學院의 《古代漢語虛詞詞典》, 董志翹·蔡鏡浩의 《中古虛詞語法列釋》는 문법화 문제를 인식하면서 충분한 주석을 한 중요한 사전이다.

2. 새로운 연구 동향

문법화의 전통적인 연구 모델은 개별 단어 혹은 구의 연구를 기반으로, 전통 언어학을 주요한 이론적 기초로 하면서 단일한 공시적인 관찰로 개괄된다. 그러나 문법화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 국내 문법화 연구에 다음 다섯 가지 방향에서 새로운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1) 공시적 변이의 연구

공시 평면상의 변이(variation)는 언어의 공시적 변화(change)의 서로 다른 단계, 서로 다른 층위의 반영이며 허화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공시 평면상의 심리언어학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통시적 관찰과 공시적 분석을 결합하는 것은 문법화 연구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이 분야에서는 張伯江·方梅(1996), 方梅(2000)등이 있다.

張伯江·方梅(1996)는 통시체계에서 형식의 발생 및 교체와 공시체계의 기능간의 분업은 실제로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형식은 유표지에서 무표지로 발전하며 의미는 점차 광범위해지며 예전 형식은 무표지에서 유표지로 퇴화되며 의미는 점차 좁아진다. 시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VV看' 구조가 나타난 후 원래 시도의 의미 형식의 'V看'의 'V'는 뚜렷한 시도의미의 동사로 국한되었다. 공시체계에서 한 단어의 서로 다른 용법은 그것이 문법화의 동태적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동태, 공시적인 안목으로 한 단어의 공시 체계에서의 변이와 그 원인, 과정, 인지적 근거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허화연쇄 원리와 일치한다.

方梅(2002)는 화용적 입장에서 담화 과정중의 문법화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連詞 '所以'의 예를 들어 일상적인 담화에서 後項 연결사의 약화 기제를 분석했다. 일상 회화에서 後項 연결사와 호응되는 앞 문장의 前項 연결사가 없을 경우 그 의미관계는 실질적으로 담화 연결 작용에 의해 치환되어 의미의 약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所以'는 원래 '결과(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나

타내지만 그 용법이 약화되어 '결론(논증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중국어 문장의 핵심성분은 左輕右重의 화살축을 형성하며 이 때문에 중국어의 主從 복문의 일반적인 어순은 종속절이 앞에, 주절이 뒤에 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중국어 복문의 전항 연사의 의미 부하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자주 생략하게 된다고 하였다.¹³⁾

沈家煊(1998) 역시 실사 허화의 과정은 공시 어법현상에 중요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負責/送你去医院'의 구조관계는 述賓과 狀中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負責/VP'는 '負責/NP(我負責這件事)'에서 일반화(泛化)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동사는 명사성 빈어의 수반에서 謂詞性 성분까지 수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반화되며 정보 배분에 있어 부수적인 동사가 되며 述語의 기능에서 부사어(狀語) 기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법화 형식의 일종으로 '想/NP(我想她)'가 '想/VP(我想去北京)'로 일반화 된 것과 같다. '想'은 이미 述語에서 狀語로 심리동사 '想'은 이미 조동사화되었다.

2) 단어의 발생과 교체와 관련된 거시적인 관찰(詞匯興替的宏觀觀察)

劉丹青(2001)은 '문법화는 불충분 문법화, 충분 문법화, 과문법화의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으며 과문법화의 결과로 어법 범주의 약화, 소실 및 재문법화 과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새로운 재문법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불충분 문법화를 기점으로 어법화의 순환을 형성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독립적이고 단발적인 문법

13) 회화에서 사람들은 重音으로 의미 부하를 강조하지 전항의 연결사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논리 구조가 긴말한 어투나 상황에서 한 세트의 관련사어를 쓰게 된다. 변형된 형식은 중국어는 어순의 변형을 정보 강조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후항의 연결사의 부하는 더욱 강해지며 생략하기 어렵다, 馬清華(2003) 참조.

화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약간의 혹은 이론상 무한대의 문법화 연쇄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쇄적인 문법화 과정을 단어의 발생과 교체의 환경을 대전제로 삼아 문법화 연구를 역사적 층위로 심화시켰다.

한편 李宗江(1999)은 구체적인 통시 연구에서 기능어(功能詞)와 그의 여러 의미항목의 문법화 과정을 일련의 관련되는 단어 사이의 경쟁 및 역할 분담이라는 의미에서 관찰하였다.

3) 언어 보편성의 연구

문법화는 언어의 보편성 영역으로 귀납하여 연구할 수 있는데 石毓志·李訥(2001)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의미범주는 어떠한 동사가 가장 쉽게 개사로 변화할 수 있는 가를 결정하는데 서로 다른 언어의 특정한 동일 의미범주의 단어가 같은 류에 속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영어와 중국어의 개사 ‘被, 給, 爲, 用, 通過, 從, 在’ 등의 의미범주는 영어 ‘by, to, for, with, through, from, at’ 등의 전치사와 대응된다. 즉 영어 전치사의 통사적 특징은 중국어와 같이 시간적 정보와 무관한 빈어를 수반하고 부정 등의 동사의 통사적 특징만을 가지며 시간적 정보를 나타내는 時, 態, 體, 인칭등과 결합하는 동사의 통사적 특징은 상실했다. 이와 반대로 ‘桌子’와 같은 단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설 등의 관련 의미로 발전할 수 없다. 이는 ‘의미선결성원칙(語意先決性原則)’을 검증해주는 데¹⁴⁾ 孫朝奮(1994) 역시 ‘허화의 전제조건은 실사의 의미 자체가 다’라고 하였다.

4) 통사 구조의 체계적인 변화가 실사의 허화에 주는 영향 분석 (注意結構体系性變化對實詞虛化的影響)

14) 邵敬敏(2000) 참조.

虛詞와 구조는 통사 체계의 두 가지 유기적인 구성 부분이다. 이들을 결합하여 통사구조로 허화를 보는 것은 이미 문법화 연구한 방향이 되었다. 재분석, 부수적인 통사적 지위로의 고정화는 이미 문법화 기제의 이론이 되었는데 이들은 통사구조의 틀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한 구조의 체계적인 변화가 허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문법화 연구의 새로운 시야를 터준다. 石毓智·李訥(2001), 石毓智·徐傑(2001), 王珏(2001)가 대표적이다.

石毓智·徐傑(2001)는 문법은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서 각 구조사이에 상호 의존, 상호 제약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 중 어떤 것에 변화가 생기면 원래 체계의 평형을 깨어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새로운 어법 수단이 가장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와 기능이 같은 혹은 관련 있는 어법 형식이다. 또 石毓智·李訥(2001)는 통사구조 변화를 근거로 '像…似的'의 유래를 분석했다.

또 石毓智·徐傑(2001)는 반대로 문법화가 통사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판단사 '是'의 탄생은 예전 어순 초점 표시 방법에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첫째, 판단사 '是'의 낮음 及物性은 빈어가 되는 의문 대명사의 전치를 제한하여 많은 'V+의 문대명사'의 용례를 만들어 어순의 변환을 약화시켰다. 둘째, 새로운 초점 표기로 다시 변화하여 《世說新語》의 '今時有者, 皆是先寫'의 예와 같이 기능상 과거의 어순 초점 표시방법을 대신하여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 이러한 문법화와 구조변화의 상호 영향을 통해 이들의 변화는 체계적이며 조화를 이루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王珏(2001)는 언어 내부 각 요소들의 통시적 변화 중에서 상호작용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는 O.Jespersen의 관점을 인용하여 영어 허사의 탄생과 발전은 단어의 형태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5) 중국어 어법학의 자생 이론으로 문법화 문제 분석

중국 국내 자생적인 어법 이론으로 문법화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 石毓智·李訥(2001), 姚振武(2000)를 들 수 있다. 비록 '의미지향' 이론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모호한 범주이지만 石毓智·李訥는 이 중국 어법학의 자생적 이론으로 중국어 시태표지 '却, 去, 了, 着, 過' 등의 탄생 기제에 대해 성과 있는 분석을 하였다. 그들은 의미지향의 종류에 따라 보어를 분류하면서 중국어 동사 뒤의 시태표지는 動補語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姚振武(2000)는 朱德熙의 '陳述'과 '指稱'의 범주를 문법화 문제의 연구에 적용하였다. 그는 피동 의미 동사 '爲', 동사 '以爲', 連詞 '以', 제3인칭 '其'의 탄생은 '指稱'과 '陳述'의 본질적으로 의미의 상통과 화용적 검용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IV. 結語

이상에서 중국의 문법화의 기존 연구와 연구 특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문법화는 언어 변화의 범주에 속하여 통시 언어학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994년 이전의 연구는 문법화 과정을 중심으로 순수하고 단일한 역사적 안목으로 문법화 현상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관련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특히 최근 공시 언어학 연구자들 역시 문법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94년 일부 학자들에 의해 서구 언어학계의 문법화 이론이 소개된 이후 중국의 허화 연구는 서구 언어학 이론적 배경 하에 크나큰 질적 변화를 거쳤으며 문법화 연구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

다. 대다수의 어법학자들이 체계적으로 문법화의 메커니즘을 연구 목표로 삼고 문법화 연구를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여 이제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 유효한 분석을 제기하여 어법학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문법화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학자들마다 그 범위의 폭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을 추려보면 문법화는 언어발전 과정 중 통사단위와 화용법이 '實'에서 '虛'로 고정화되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어음의 약화현상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문법화 기제 역시 비교적 모호한 개념으로 협의 문법화는 문법화의 방식으로 본다. 또 광의의 문법화는 문법화의 동기까지 포함하는데, 동기와 방식은 대체적으로 대응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연구 영역으로 묶기도 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문법화 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태표지, 지칭표지, 구조표지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이러한 개별 문법화 현상 외에도 문법화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연구동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공시적 변이, 단어의 발생과 교체, 언어의 보편성 연구, 통사구조의 체계적 변화와 문법화의 상호 영향, 중국 내 자생적 어법 이론을 근거로한 문법화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參考文獻

- 江籃生, 「語法化程度的語音表現」, 『近代漢語探源』, 北京:商務印書館, 2001.
- _____, 「助詞“似的”的語法意義及其來源」, 『近代漢語探源』, 北京:商務印書館, 2001.
- _____, 「疑問語氣詞“呢”的來源」, 『近代漢語探源』, 北京:商務印

- 書官, 2001.
- _____, 「處所詞的領格用法与結構助“底(的)”的來源」, 『近代語法探源』. 北京:商務印書館, 2001.
- 郭錫良, 「介詞“于”的起源和發展」, 『中國語文』, 1997·2.
- 김은일·박기성·채영희 옮김, Paul J. Hopper & Elizabeth Closs Traugott, 『문법화(Grammaticalization)』. 서울:한신문화사, 1999.
- 김종도·나익주 옮김, Ronald W. Langacker 지음, 『문법과 개념화(Grammar & Conceptualization)』. 서울:박이정, 2001.
- 羅 驥, 「北宋句尾語氣詞“也”研究」, 『古漢語研究』, 1994·3.
- 呂叔湘, 『近代漢語指代詞』, 上海:學林出版社, 1985.
- 劉堅·曹廣順·吳福祥, 「論誘發漢語詞匯語法話的若干要素」, 『中國語文』, 1995·3.
- 劉丹青, 「語法化中的更新、強化与疊加」, 『上海市師範大學語言研究所』, 2001·2.
- 劉勛宁, 「現代漢語句尾“了”的來源」, 『方言』, 1985·2.
- 方梅, 「自然口語中弱化連詞的話語標記功能」, 『中國語文』, 2002·5.
- 徐 丹, 「漢語里的“在”与“着”」, 『中國語文』, 1992·6.
- 石毓志·徐傑, 「漢語史上疑問形式的類型學轉變及机制-焦點標記“是”的產生及影響」, 『中國語文』, 2001·5.
- 石毓志·李訥, 『漢語語法化的歷程-形態句法發展的動因和機制』, 北京:北京大學出版社, 2001.
- 邵敬敏, 「論漢語語法的語意双向選擇性原則」, 『漢語語法的立體研究』. 北京:商務印書館, 2000.
- 孫錫信, 『近代漢語語氣詞』, 北京:語文出版社, 1999.
- 孫朝奮, 「在論助詞“着”的用法及其來源」, 『中國語文』, 1997·2.

- _____, 「《虛化論》評介」, 吳福祥 主編, 『漢語語法化研究』, 北京:商務印書館, 2005.
- 沈家煊, 「語法化」研究綜觀, 『外語教學與研究』, 第4期, 1994.
- _____, 「實詞虛化的機制-《演化而來的語法》評介」, 『當代語言學』, 1998·3.
- 吳福祥, 「重談“動+了+賓”格式的來源和完成體助詞“了”的產生」, 『中國語文』, 1998·6.
- _____, 「從“VP-neg”句式反復問句的分化談語氣詞“呢”的產生」, 『中國語文』, 1997·1.
- 姚振武, 「指稱與陳述的兼容性與引伸問題」, 『中國語文』, 2000·6.
- 王鳳敏, 「關於語法化及語法化五個方面的述評」, 『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5.
- 王 珏, 『語言內部補償論』, 香港:天馬圖書有限公司, 2001.
- 于進海, 「從語法化會議看學界對語法化研究的關注點」, 『周口師範學院學報』, 第23卷 第1期, 2006
- 陸儉明, 「語言研究目的淺議-兼談漢語應用研究有廣闊的前景」, 『語言文字應用』 第2期, 北京大學, 2006
-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서울:한국문화사, 1998.
- 李崇興, 「祖堂集中的助詞“去”」, 『中國語文』, 1990·1.
- 李宇明, 「疑問標記的複用及標記功能的衰變」, 『中國語文』 1998·2.
- 이정애, 「문법화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흐름」, 『韓國言語文學』 第40輯, 1998.
- 李宗江, 『漢語常用詞演變研究』, 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 1999.
- 李泰洙, 「《老乞大》四種版本從句句尾助詞研究」, 『中國語文』, 2000·1.
- 張國憲, 「現代漢語形容詞的體及形態化過程」, 『中國語文』, 199

8·6.

張煉強, 「試說以“時”和“的時候”熬尾的假設從句」, 『中國語文』, 1990·3.

張伯江·方梅, 『漢語功能語法研究』, 南昌:江西教育出版社, 1996.

趙大明, 「“于”系處所介詞的歷史演變」, 『古漢語語法論集』, 北京:語文出版社, 1998.

鐘兆華, 「語氣助詞“嗎”的形成和發展」, 『語文研究』, 1997·1.

——, 「語氣助詞“呢”的形成和發展」, 『中國語文』, 1997·5.

朱慶之, 「關於疑問助詞“那”的來源考察」, 『古漢語研究』, 1991·2.

최형용, 「문법화의 한 양상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997·12.

馮春田, 「試論結構助詞“底(的)”的一些問題」, 『中國語文』, 1990·6.

洪波, 「論漢語實詞虛化的機制」, 『古漢語語法論集』, 北京:語文出版社, 1998.

解惠全, 「談實詞的虛化」, 吳福祥 主編. 『漢語語法化研究』. 北京:商務印書館, 2005.

ABSTRACT

A survey of studies on grammaticalization in Chinese

Kim Seonah

This paper makes an overview on the grammaticalization theory research in Chinese, mainly introduces the cognition and definition of grammaticalization by linguists; how can we recognize grammaticalization; the restructuring of grammar system caused by grammaticalization; the reasons and conditions of grammaticalization;

the new trend of grammaticalization theory.

KEY WORDS

grammaticalization, overview, unidirection, categorization,